

가족관계 단절 문제에 대한 부모되찾기 설화의 문학치료적 역할*

박재인**

<차례>

1. 서론
2. 탈북청년의 가족관계 단절 문제와 부모되찾기 설화
3. 문학치료 사례: <내 복에 산다>와 <부모의 치성>에 대한 재의미화 반응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장마당세대 탈북청년들의 '가족관계 단절 문제'에 대한 구비설화의 심리치료적 역할을 예측해보는 문학치료 논의이다. 장마당세대는 사회적·개인적 한계를 타파하고자 '탈북'을 선택한 존재로 현재 왕래가 단절된 가족과의 관계에 대하여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탈북청년들이 '부모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며, 현재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사유하게 하는 바를 목적으로 부모되찾기 설화들을 활용한 문학치료 방안을 구상하였다. 부모되찾기 설화들은 '성장 후 포용'이라는 서사구조 및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하여 탈북청년들은 부모밀치기로 획득된 이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재회가 아닌 정서적 연결로써 가족관계 단절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구비설화 <내 복에 산다>와 <부모의 치성으로 환생하여 원님 된 아들>을 활용한 문학치료 집단 활동을 예시로 제시하였는데, 탈북청년들은 두 설화에 감동하면서 자기 삶의 현실 문제와 교차하여 사유하고 설화의 의미를 확장시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반응을

* 이 글은 2023년 11월 11일 한국고전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나타냈었다. 이 사례로 두 구비설화가 이들의 삶을 대변하면서 긍정적 미래를 밝혀 주는 탁월한 문학적 언어로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되며, 외상기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서사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 전망된다.

주제어 장마당세대, 탈북민 문학치료, 구비설화 <내 복에 산다>, 구비설화 <부모의 치성으로 환생하여 원님 된 아들>, 부모되찾기서사, 삶에 대한 문학적 재의미화

1. 서론

문학치료는 인간 삶에 대한 문학연구의 효용성을 목적으로 하며 문학의 작품서사와 인간의 자기서사가 소통하여 이뤄내는 심리치료적 효과를 꾀하는 응용학문이다. 여러 문학치료 사례 연구들에서 고전서사를 활용하면서 심리치료 효과에 탁월한 작품서사로 시대를 초월한 걸작들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 인류의 원형적 가치와 인륜성, 그리고 고금을 뚫고 전승되어 온 삶에 대한 철학과 식견 등이 현대인들에게 유용하다는 점이 이러한 연구들로 입증되어 왔다. 그 가운데 이 연구는 구비설화를 활용한 탈북민 대상 문학치료 방안으로, 특히 ‘장마당세대’라는 새로운 세대에 주목한 문학치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탈북민에 대한 문학치료는 이주와 적응 문제 및 다문화 과제 등 현시점에 필요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면서, 남북사회 통합 사안에서 고전문학의 역할을 확인하는 연구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넘어서고, 그 탈북유형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유형을 1세대로 간주한다면, 현재 이주형 탈북은 그 세대도 다르고 탈북 동기와 이주 후 삶의 방식도 다르다. 이를 탈북3세대, 장마당세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¹⁾

1세대의 탈북은 기아와 극빈을 벗어나 생존하는 것이 결정적인 동기였다.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시기의 탈북여성들은 “소금 한 줌만 있었어도 탈북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으며, 탈북과 이주의 고통을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다.²⁾ 그런데 반해 장마당세대들은 삶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주를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위해 탈북을 ‘선택’하는 존재들이라는 점이 중요하며 이는 변화된 북한의 사회적 배경과도 관련된다. 장마당세대는 과거 사회주의 내지 주체사상 의식을 체화하고 조직생활에 충실한 배급세대와 구별되며 ‘비사회주의’적 의식과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세대로 평가되기도 한다.³⁾

그래서 이전 세대가 북에 두고 온 가족에게 죄의식을 느끼고 또 남한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의 생존 문제에 고민이 있었다면, 장마당세대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만큼 현재 삶에 대한 정신적인 만족도

- 1) 변화하고 있는 탈북유형에 관하여 다음의 논의들을 주목할 수 있다.(이하나·정동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정 변화에 따른 탈북 청소년 새로운 적응 양상과 교육적 과제 : 북한이탈청소년 P 방과 후 사례 연구」, 『학생연구 경연대회』 9, 덕성여대 사회과학연구소, 2010, 43~64쪽; 김종균, 「탈북청소년 구술에 나타난 엄마의 해체와 자기치유적 말하기」, 『문학치료연구』 4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115~146쪽.) 그 중 김종균은 고난의 행군 시기의 탈북을 1세대의 생계형 탈북, 1세대들이 정착 후 가족의 탈북을 돕는 유형을 2세대 구조형 탈북, 그 이후 3세대의 탈북을 이주형 탈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1세대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경제난 때에 탈북민의 수가 급증하던 경우로 한정하고 2세대는 1세대들이 그들의 가족들을 탈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대략 2000년대에서 2010년대라고 한다면, 3세대는 2010년 중반 이후 김정은 정권 시기부터 탈북에 대한 북한의 경계가 삼엄해진 후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선택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 2)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 북한이탈주민들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이탈주민들 경우에는 “왜 이렇게 궁핍한 삶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국가사회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특성이 있다.(임태완, 「남북통합 과정의 심리사회적 위기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위기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북한학연구』 7-2,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11, 5~35쪽.)
- 3)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19, 연세대 통일연구원, 2015, 6~40쪽.

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남한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도 중요하면서 더불어 과거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와 또 현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꾸려가는가에 더 깊은 고민이 있다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적응을 위한 심리치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되어왔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심리상담 연구에서는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집중했었고,⁴⁾ 국내 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이 연구되어 왔다.⁵⁾ 그 가운데 문학치료에서는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탈북민의 심리치료 역할을 수행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고전문학이라는 북한 출신 주민에게도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소재로 탈북민에 대한 문학치료 사례들이 상당량 발표되었다.⁶⁾

-
- 4)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이탈주민 연구는 애초에 우울, 불안, 두려움, 죄의식과 같은 PTSD 진단과 사회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다. 이때에는 “고문, 강제노동, 굶주림, 감시와 잔혹한 폭력행위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 및 죽음 목격, 성폭행, 집단수용소 생활, 생명을 위해하는 질병에 걸림, 수용소에서의 영양실조, 신체적 상해 및 대량학살, 불법이주 생활로 인한 희생의 위험 등”으로 대표되는 난민으로서의 외상(trauma)에 주목해왔다.(김현경,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trauma)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6, 16~17쪽.)
-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은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졌다. 다수의 부처에서 세부 타깃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전부터 실행되었던 심리상담과 더불어, 정서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현황이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이 꽤 많이 도입되었으며, 청소년·노년층·여성 등 각 대상에 맞춘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최근 먼저 입국한 부모를 따라 탈북한 청소년과 자발적 이주의 청년 수가 늘어가는 추세에 따른 방안으로 판단된다.
- 6) 김정애, 「구술담과 문학치료 활동을 통해 본 탈북민 P씨의 남한 적응 요인과 그의 미」, 『통일인문학』 65,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6, 171~209쪽; 나지영, 「설화〈내복에 산다〉의 재창작을 통한 탈북 청소년의 문해력 신장 사례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151~176쪽; 박재인, 「탈북여성B의 구비설화에 대한 이해 방식과 자기서사」, 『고전문학과 교육』 2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291~324쪽; 박재인, 「탈북여성의 부모밀치기서사 성향과 죄의식」, 『구비문학 연구』 39, 한국구비문학학회, 2014, 73~114쪽; 박재인, 「탈북민 대상 문학치료 사례 연구-‘이주와 성공’의 고전서사와 자아실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

이전에는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 역시 이들에 주목하며 문학치료학의 기초서사 16개의 설화작품으로 이들의 ‘부모되찾기서사’를 분석한 바 있으며, 〈심침전〉, 〈홍길동전〉 등 ‘이주-성공의 고전서사’ 활용하여 고전서사 속 영웅들의 삶에서 공통점을 발견해 내면서 이들의 탈북과 이주 경험을 긍정적 기억으로 전환시키고 삶에 대한 무망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하였다.⁷⁾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장마당세대를 위한 문학치료는 ‘이전 삶과 현재 삶의 인간관계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젊은 세대들의 고민에 주목한 것인데, 장마당세대들의 고민은 주로 과거 북한에서의 가정문제와 현재 인간관계⁸⁾ 특히 남한사회로의 진출과 성공으로 초점화되어 있다. 더불어 남한주민과의 교류와 경쟁에 더욱 의욕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에 따라 장마당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정신적 만족감이 큰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전 세대가 묵인하고 참아냈던 갈등들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구] 11-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8, 75~103쪽; 박재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대한 탈북민의 반응과 문학치료 효과」, 『인문사회 21』 9-4, 인문사회 21, 2018, 251~264쪽.

- 7)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민들은 극빈과 기아에서 벗어나고자 탈북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후 남한살이에서 무엇보다 물질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만 몰두한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현재의 삶에서 ‘자기실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무망감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며, 이 문학치료를 기획한 것이다.(박재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학치료』, 박이정, 2018, 1~268쪽.)
- 8)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북한이탈주민들도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본인의 노력과 인간관계 등 정서적 측면에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연구』, 통일연구원, 2003, 115쪽.) 인간관계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이기도 한데, 그것에 대한 극복 욕구는 젊은 세대에게 더 강한 편이다.

특히 20대 탈북청년들에게 생애주기 특성 상 가족관계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연구자가 만난 장마당세대 2-30대 탈북민의 경우 기출이 탈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북의 가족관계에서 빚어진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가며 새로운 삶에 적응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 북 가족관계는 탈북의 결정적 이유였으면서도 현재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과거(북에서의 삶)의 문제이면서 더불어 지독한 그리움과 불안으로 남한살이 적응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과거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상처를 회복하는가’에 집중하면서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치유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⁹⁾

2. 탈북청년의 가족관계 단절 문제와 부모되찾기 설화

문학치료 방안을 구상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담자에게 치료적 기능을 발휘할 작품서사를 찾는 일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내담자의 문제상황을 하나의 서사로 이해하는 일이다. 서사적 이해란, 고통 받는 주체를 중심에 두면서 문제 상황에서 한 단계 더 파고들어 내담자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주체의 존재론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 상황에 얽힌 전후맥락(인간관계 형성-위기-귀결)¹⁰⁾을 스토리

9) 연구자는 장마당세대 탈북청년들의 현재 삶에서의 인간관계 주요 문제를 ‘나를 배척하는 이 사회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 것인가’로 상정하고, 『삼국유사』의 비형이야기를 활용하여 탈경제적 존재로 거듭나는 목적의 문학치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연구논문으로 보고한 바 있다.(박재인, 『『삼국유사』 〈비형 이야기〉를 통해 본 탈북청년들의 (탈)경제인으로서 자기서사』, 『문학치료연구』 63,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103~147쪽.) 그와 함께 이 논문은 ‘과거의 삶’에 초점화하면서 가족관계 단절 문제에 대한 회복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시범적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이때의 ‘회복’은 단절된 가족관계를 재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 야기한 상실감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0) 정운채,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기초서사의 네 영역과 〈구운몽〉 분석 시론」,

형태로 정리하는 일로 가능하다.

탈북청년 사례로 설명하면, 우선 서사 주체의 존재론적 특징으로 장마당 세대 청년들은 이전의 탈북민들과 달리 자발적 이주라는 특성이 있다. 자기 삶의 자율성을 위해 기존 공간을 떠난 존재들이며, 탈북으로 개인적·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삶을 꿈 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상태라고 할 수 있다.¹¹⁾ 탈북 전 삶의 문제는 가정불화 내지 가난이라는 개인적 문제와 ‘토대’라는 사회적 한계 등이었는데, 탈북과 한국입국 후에는 자유, 한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 대학 입학 기능의 이점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탈북 이후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분단의 현실과 가족관계 단절의 문제이다. 최근 탈북한 청년들의 경우에 가출이 탈북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탈북청년들의 생애담 인터뷰에서는 늘 북한의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여기에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장마당이 주요 생계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어머니는 장삿길에 뛰어들고 경제력을 지니게 되며 가정 내 여성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리고 배급이 끊기면서 아버지의 힘은 약해졌지만 강력한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폭력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았다. 여기에서 부부갈등이 심각해지고 어머니가 가정을 떠나거나 아버지가 음주나 약물에 중독되는 사례들이 있다. 혹은 경제적·사회적(토대) 한계 때문에 가난이나 사회적 지위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긍정적 전망이 되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았다. 이때 탈북청년들이 갈등을 견디다 못해 가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가 만난 탈북청년들 역시 자신의 북한에서 삶을 토로할 때에는 대체로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을 못 이기고 가출하였다가 중국에 가서 돈

『문학치료연구』 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7~36쪽; 신동훈,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의 보완 확장 방안 연구」, 『문학치료연구』 3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32~36쪽.

11) 박재인(2022), 앞의 논문, 105~106쪽.

을 벌어야겠다며 탈북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북한에서 불행한 삶의 기억은 현재 남한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며 그 외로움이 극심하면서도, 또 부모가 미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처음에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혹은 억압적인 사회로부터 벗어나고자 가출하였던 것이 탈북으로 이어진 것인데, 문제는 만약 가출을 후회한다 해도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로운 삶을 꿈 꾸며 남한에 오게 된 이들은 지속적으로 외로움을 자극받고, 더 이상 가족들과 재회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한다. 분단체제 속에서 이들은 ‘가족이 없는 사람’이 되면서 이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저는 봤을 때 내가 혹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계속 그거를 뭐가 잊어버리려고 일부러 계속 회피하지 않는거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가끔 있긴 해요. (탈북청년 1)

그래서 저는 아예 부모님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면 막 당장이라도 가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게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생각하면 나만 힘들고 나만 스트레스 받고. (탈북청년 2)

나오자마자 후회했죠. 북에서 쉽게 나온 것처럼 다시 쉽게 돌아갈 수 있는지 알았거든요. ... 그냥 너무 생각나고 부모님이 항상 꿈에서 나타나고 하니까, 계속 생각나고 하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런 고생하지 막 이런 생각. (연구자 : 후회해서?) 탈북이 후회되죠. 돌아가면 가족들이 위험하다고해서. (탈북청년 3)

위와 같은 회피적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는데, 이들의 삶에서는 지난 과거와 관련된 상처들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청년1은 가끔 남한살이에 지칠 때 자신이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외로운 처지임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자살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탈북청년2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정답게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난다고 털어 놓기도 하였다. 이렇게 회피해버린 문제는 일상생활의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으로 표출되기 쉽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과 북이 통일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이나 탈남하여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회피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 단절 문제가 상기될 때마다 이들은 가족과 재회하고 싶은 욕망의 충동으로 '통일'이나 '탈남'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통일은 분단체제의 언어로 욕망을 담아낼 수 있지만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허망한 환상이며, 탈남은 분단체제라는 상징계에서 허용하지 않는 환상이다. 통일이나 탈남 둘 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불안을 가중하는 적절하지 못한 언어인 셈이다.

정리하면, 외상사건을 둘러싼 이들 생애의 서사구조는 부모밀치기서사¹²⁾이며 그 결과 삶에 대한 자율성 확보 및 이전보다 나은 물리적 여건

12) 부모밀치기서사와 부모되찾기서사라는 용어는 문학치료의 '기초서사' 이론에서 인용하였다. 문학치료 서사이론에서는 원초적 인간관계를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맺기 방식을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총16개 대표서사들을 선정한 바 있다.(정운채(2005), 앞의 논문, 7~36쪽.) 기초서사는 인간이 갈등할 수 있는 문제의 대표성을 띤 지점을 구분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식의 유형을 연역적으로 구분하면서, 내담자 자기서사의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활용되며 주로 내담자의 문제상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에서 기초상담 자료로 적용되고 있다.

부모밀치기서사와 부모되찾기서사는 자녀서사영역에 속하며, 자녀로서 부모를 대할 때 의혹의 시선으로 관계를 밀쳐내는 서사구조를 부모밀치기서사라고 하며, 자녀로서 부모를 대할 때 의혹의 시선으로 관계를 밀쳐냈으나 다시 관계를 포용하는 서사구조를 부모되찾기서사라고 한다. 연구자는 이전에 탈북민의 자기서사가 '부모밀치기서사'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죄의식이 남는 문제를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심정전>과 같은 부모되찾기서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박재인(2014), 앞의 논문, 73~

등으로 성공의 결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밀치기서사의 결과로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불안’의 문제가 남겨진 상태이다. 그리고 통일이나 탈남이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면, 이들이 외상사건인 가족관계 단절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어떠한 문학적 언어가 필요할지 고민해야 한다. 바로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외상사건을 삶의 어떤 의미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가 바로 작품서사를 탐색할 때의 주안점이 된다는 것이다.

작품서사 탐색에서 첫 번째 기준은 당연히 ‘가족관계 단절’의 사건을 포함한 서사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앞뒤 전후 맥락이 탈북청년들의 상황과 유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의 문제, 가족관계 단절의 문제를 서사 주체의 존재론적 특징과 사태의 전후맥락을 고려하면, ‘자율성이 확보된 삶’이라는 애초의 가출 추동 원인과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상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 외상사건 이전의 상황은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토대라는 신분적 제약 등에 있었고 외상사건 이후의 상황은 사회적이며 경제적 이득을 획득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가출과 탈북으로 인하여 비록 가족관계는 단절되었으나, 개인적·사회적 억압으로 좌절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서사적 이해, 부모밀치기와 성공의 귀결을 보여주는 서사가 작품서사를 탐색할 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더불어 서사의 주체가 가족관계 단절 이후 외로움, 그리움, 불안의 심리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이 중요하다. 부모밀치기의 결과로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불안’의 문제가 남은 것인데, 이 장면이 포함된 서사의 종류는 부모되찾기서사들이다. 그리고 부모되찾기서사는 가족관계 단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을 다양한 문학적 상상력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서사구조라는 큰 틀로 선별 기준을 세우면, ‘①가족관계(혹은 현

실적 상황)가 서사 주체의 자율적 삶을 억압하는가, ②서사 주체가 가족을 떠나오면서 자기 삶의 자율성을 획득하는가, ③서사 주체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하는가, ④서사 주체는 가족관계 단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로 다양한 작품서사들이 탐색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구비설화 <내 복에 산다>¹³⁾, <부모의 치성으로 환생하여 원님 된 아들>¹⁴⁾이다. <내 복에 산다>에서 누구 복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질문과 내 복에 산다는 셋째딸의 대답, 그리고 셋째딸의 떠남은 탈북청년들이 기출과 탈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외상기억의 의식적 침투 작용을 한다. 이후 셋째딸이 자기정당성을 획득하며 성공에 이르는 전개과정은 이들의 소망에 가깝기도 하다. 그리고 부자가 된 셋째딸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는 장면은 이들의 현재적 상황과 닮아 있으며, 마지막으로 ‘거지잔치’ 화소는 복에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설화는 탈북청년들이 집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복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사유하게 하는 상담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13) 이 구비설화는 “누구 덕에 사느냐”고 묻는 아버지를 향하여 “내 복에 산다”고 답한 셋째딸이 집에서 쫓겨나, 정말 자신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부자가 된 셋째딸이 부모를 그리워하다가 백일 간 거지잔치를 벌여 거지가 된 아버지를 찾고, 부녀관계를 회복하는 결말을 보인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 휴머니스트, 2022, 268쪽.)

14) 이 구비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밭을 매고 있던 가난한 농부와 그의 아들이 고을 원님의 화려한 행차를 보고, 아들이 원님이 되고 싶다고 하자 농부아버지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아들이 상심이 커서 며칠을 꿈꾸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아들은 환생하여 그 고을 원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원님이 된 아들이 장성하여 출세하였는데, 매해 같은 날마다 잘 차려진 밥상을 받고 맛있게 먹는 꿈을 꾸었다. 원님이 된 아들이 꿈에 나타난 곳을 찾으니, 한 노부부가 일찍 죽은 아들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원님이 된 아들은 전생에 부모들의 치성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생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며 살았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3, 휴머니스트, 2022, 831쪽.) 이 논문에서는 서술의 간명함을 위하여 이 작품의 제목을 <부모의 치성>이라고 칭할 것이다.

〈부모의 치성〉은 ‘환생’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 자신의 삶을 사유하게 하며, 부모와 분리된 상태에서 정서적 연결의 가능성을 드러내게 하는 작품이다. 탈북청년들에게 ‘환생’이라는 문학적 상징은 새로운 삶의 출발인 ‘탈북’이라는 결심과 행위를 떠올리게 하며 ‘다른 존재로 거듭남’의 생애 사건을 사유하게 한다. 그리고 환생 이후 성공적인 삶은 탈북 후 이전의 개인적·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한 현재의 상황을 대변하기도 한다. 더불어 탈북으로 부모로부터 대물림되었던 경제적·계급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현재는 부모님과 분리된 삶이지만 그 정서적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치성’ 화소는 불행한 기억으로만 자리 잡혔던 과거 삶에 대한 기억을 ‘현재의 성공을 뒷받침 해주는 과거’로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와의 화해,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탈북 이후 과거와 현재의 삶을 연결하여 사유하게 하는 작품서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작품서사들이 탐색되면, 위와 같이 작품서사가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야 한다.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서사의 형태와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상하고 상담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탈북청년의 경우, 가출과 탈북이 후회와 좌절로만 기억되지 않게 하는 일과 가족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작품서사의 영향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가출과 탈북이 후회와 좌절로만 기억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밀치기의 결과로 이들의 자율적 삶이 획득되는 서사적 전개에 대해 탈북민이 공감하게 하는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문학치료 사례에서는 〈내 복에 산다〉 속 아버지의 질문과 셋째딸의 대답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검토하면서 부모로부터 분리와 성공의 서사 전개에 대한 내담자의 공감 정도를 확인했다. 또 〈부모의 치성〉에서는 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내담자의

반응을 유도해 냈는데, 뒷이야기 상상하기와 본래 줄거리와의 비교 활동으로 환생 후 성공적인 삶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내담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탈북청년에게는 가족관계 단절 문제에 대해서 부모와 재회하고 화해하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부모몰치기서사의 결과로서 획득된 이점이 상실될 수 있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구비설화에서는 가족관계 회복을 그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그려내지 않는다. 두 설화작품은 ‘성공 후 포용’이라는 부모되찾기 방식을 보여주면서, 거지잔치와 부모의 치성이라는 화소로 각각 부모되찾기 방식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내 복의 산다〉의 거지잔치는 왜곡된 삶에 대한 부모의 각성이 수반되고 있으며, 〈부모의 치성〉의 화소에는 서로 달라진 운명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걱정과 축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물리적 재회가 불가능할 때, 이 두 화소는 문학의 상징적인 방식으로 부모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포용, 그리고 정서적 연결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이 문학치료 활동은 작품서사에 깊이 있게 몰입하면서 자기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사유할 수 있도록, 특히 작품 속 화소에 대해 내담자가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다른 사람의 해석방식도 들려주면서 토론의 과정으로 상담내용을 구성하였다.

작품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몰입, 그리고 자기 삶으로의 적용 활동이 어떤 심리치료적 효과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외상기억에 대한 의식적 침투의 작업을 고려할 수 있다. 의식적 침투는 내담자가 회피하고 있는 외상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며, 내담자가 사태를 올바르게 보며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외상기억의 서사를 교체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작업이다. 심리학에서는 외상기억의 반추를 통해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서 ‘외상 후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¹⁵⁾ 문학치료에서 작품서사를

감상하고 분석과 창작 행위를 반복하는 일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식적 침투’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 ‘자기 삶으로의 적용’ 과제를 중시하는 까닭 또한 자기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분석학에서는 트라우마 치료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원리로 외상기억에 대한 재상징화 작업을 논한다. 외상사건 전과 후의 자이를 통합시키고 외상기억을 포괄한 형태로 자기 삶의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보다 자기 삶에 기능적인 형태로 삶의 이야기를 다시 구성해내는 과정이다. 자신의 생존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상징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경험 안에 외상사건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¹⁶⁾ 이와 함께 주디스 허먼은 트라우마로 인해 파괴된 과거의 신념 대신 새롭게 자신을 지탱할 신념을 찾고, 트라우마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⁷⁾

문학치료에서도 ‘외상기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서사를 재구성한다¹⁸⁾는 기본 치료 원리에 따라, 내담자의 문제상황과 유사하면서도 외상기억을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서사구조와 문학적 형상화(내지 상

15) 심리학에서는 외상기억에 대한 침투적 노출은 외상사건에 대한 기억을 정교화하고 외상사건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인 평가를 수정하는 인지적 재구조화에 기능적이라고 설명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추를 통해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서 삶의 서사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와 가능성이 발견된다고 하였다.(장유빈·장혜인,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의미만들기가 외상후스트레스증상 및 외상후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8-2, 한국건강심리학회, 2023, 399~424쪽.)

16) 도널드 위니콧 저·이재훈 외 역,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 박탈과 비행』,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1, 36쪽.

17) 주디스 허먼 저·최현정 역,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플래닛, 2009, 81~82쪽.

18) 정운채, 「문학치료학과 역사적 트라우마」, 『통일인문학』 55,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3, 15~21쪽.

징)들을 탐색하는 것¹⁹⁾이 트라우마에 대한 문학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학작품에 깊은 이해를 통해 정서적 감동에 이르고, 작품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도 해석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는 단계에 이르도록 문학치료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학치료 기획에서도 내담자의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동²⁰⁾, 삶에 대한 재해석까지 이뤄내는 과정’이 발견되는가를 중심으로 상담 목표를 설정하였다.

3. 문학치료 사례: 〈내 복에 산다〉와 〈부모의 치성〉에 대한 재의미화 반응

이 문학치료는 20대 탈북청년들의 집단 상담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명	성별, 나이, 고향	탈북 및 한국입국 시기	문학치료 참가 일시	특성
탈북청년 4	남성, 1997년생, 북한 혜산	2015년 탈북 2015년 한국입국	2021년 10월 1일 / 10월 8일 14시-19시	먼저 탈북한 부모님에 의한 구조형 탈북
탈북청년 5	여성, 1999년생, 북한 혜산	2017년 탈북 2017년 한국입국	2021년 10월 1일 / 10월 8일 14시-19시	이주형 탈북 남한 입국 후 탈북경비 지급
탈북청년 6	여성, 1999년생, 북한 혜산	2017년 탈북 2017년 한국입국	2021년 10월 1일 / 10월 8일 14시-19시	이주형 탈북 남한 입국 후 탈북경비 지급
탈북청년 7	남성, 2000년생, 북한 혜산	2017년 탈북 2017년 한국입국	2021년 10월 1일 / 10월 8일 14시-19시	복에 있는 어머니의 원조로 이주형 탈북

19) 신동훈은 구비설화의 문학예술적 요소가 치료적 효과를 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사 구조와 화소의 역할을 역설했다. (신동훈(2016), 앞의 논문, 24쪽.)

20) 정운채는 작품서사와의 소통을 통한 자기서사의 변화 원리를 작품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감동의 인지적·정신적 작용으로 설명한다.(정운채,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361~381쪽.)

문학치료 집단 상담 대상은 김정은 시대의 탈북 시기, 남녀 성비 등을 고려하였으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위의 4명은 모두 김정은 시대에 탈북하여 북한이 장마당 시대로 변화한 모습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국경지역인 혜산시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여 북한사회의 변화 및 한국문물 유입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변화된 탈북유형을 잘 반영하고 있었는데, 먼저 탈북한 부모에 의한 구조형 탈북과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이뤄진 이주형 탈북에 해당되었다. 이주형 탈북에서는 여성참여자는 주로 가족이 탈북으로 이뤄진 경우에 해당하였고, 남성참여자는 북에 있는 어머니의 원조로 이뤄진 이주형 탈북이었다.

이 사례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식의 문학치료 상담이 아니며, 탈북 청년 대상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해당한다. 가족관계 단절에 고통스러워하는 탈북청년들이 과연 두 설화를 통해 자기 삶에 대한 문학적 재의미화를 해낼 수 있을까,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외상 사건을 감당하도록 자아와 부모의 관계를 새로운 의미로 해석해낼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설화의 서사구조와 중요 화소에 대한 탈북청년들의 반응과 함께, 작품과 자기 삶에 대한 재의미화를 새롭게 해내었던 성과를 간추려 제시할 것이다.

1) 〈내 북에 산다〉에 대한 반응

탈북민들은 〈내 북에 산다〉를 감상하고 자신의 탈북 계기를 떠올리거나, 이전 북에서 부모와의 갈등을 떠올리곤 한다. 더불어 나중에 부자가 된 셋째딸이 거지가 된 부모를 감싸 안는 결말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기도 한다. 그런데 주인공이 거지잔치를 열고 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장면에서 일부 탈북민들은 부담감 내지 거부감을 표현한 바 있다.²¹⁾ 이 작품서시는 가족관계 단절에 대해 성공 후 포용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지만, 성공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거지잔치라는 포용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탈북청년 문학치료에서도 두 양상의 반응이 나타났다. ‘거지잔치’를 긍정하는 경우에는 현재 남한살이에서 다시 깨달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고, ‘거지잔치’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낸 경우에는 부모 부양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이전 북에서의 자신에게 가해졌던 억압들이 현재의 삶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및 부모와 분리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이러한 ‘거부감’으로 나타난 것이라 해석된다.

이에 연구자는 탈북청년들의 반응을 종합하며 거지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문학치료 현장에서 부모 입장의 참여자에게 들었던 해석방식을 들려주었다. “거지잔치에서나 딸을 따라갈 수 있지, 딸이 그냥 찾아왔으면 못 따라가지. 어떻게 내가 내쫓은 딸을 따라가.”라고 말했던 경우를 들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자녀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이며, 부모와의 의견 충돌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성공의 서사라고 하였다. ‘내 북에 산다’라는 셋째딸의 답변은 자기 삶의 주체성이며 성공의 귀결은 그것을 입증하는 결과인데, 이때 ‘거지잔치’ 화소는 단순히 부모를 부양한다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과거 부모의 실책을 탓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결점을 감싸 안으며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과거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의 자율성을 박탈했던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이 아닌 부모의 성찰을 도우며 그것을 위로하는 포용력의

21) 이러한 반응은 탈북민 문학치료에서 자주 나타나는 반응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하였지만 가족이 탈북으로 이어졌던 한 대학생은 ‘거지잔치’ 화소를 두고 거부감을 표현하며,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바 있었다. 그녀는 대북송금으로 지처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로,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이런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라고 하며 거부반응과 죄의식의 복합적 정서를 드러낸 바 있었다.(박재인(2014), 앞의 논문, 73~114쪽.)

상징으로 ‘거지잔치’를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잔치’는 가족 범위를 넘어선 기존 세대들에 대한 확장된 포용력이고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후 한 탈북청년은 다음과 같이 ‘내 복에 산다’라는 말과 ‘거지잔치’ 화소의 의미를 연결하여 작품 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해내는 소감을 발표했다.

내 복에 산다라는 문장이 제 속에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어디 잔치를 열었다는 거는 부모한테 직접 가기가 좀 그래서 부모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열었다는 건 알리지 않지만 부모님이 거지가 된 건 사실 이니까 동네 거지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누가 “그냥 오세요” 하면 그냥 올 거니까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오게 하기 위한 그런 얘기였고 또 내 복에 산다라고 했던 건 딸이 참 지혜로운 게 난 아빠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내 복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면 아빠 덕에 산다라는 결론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문장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만드는 그런 문장 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딸이 내 복에 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네 아버지가 그렇게 낳아주신 딸이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아버지 덕이니까 그것이 이제 거지 잔치로 보여지는 것 같고. 물론 부모님을 이렇게 포용하는 자세로 나올 것 같고 결국엔 내가 좋은 딸을 낳았구나니까. 심지어 아무리 해피엔딩까지 했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탈북청년 4)

그는 거지잔치를 열어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재회하는 셋째딸이 지혜롭다고 말하며, 셋째딸이 자기 복에 산다고 말한 것은 결국 아버지 덕에 산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낳은 딸의 복’이지 않느냐며, 그 연결성이 곧 부모와 자녀의 상생적 해피엔딩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고 ‘거지잔치’는 곧 그것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부모와 자식의 삶이 분리되어도 이들의 인연은 연결되어 있고, 자녀의 행복과 부모의

행복이 연동된다는 의식을 드러낸 이해방식이었다.

4의 총평이 끝난 후 7은 ‘내 복에 산다’는 문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내 복에 산다라는 것이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맞는 말인데
솔직히 교과서적인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주어진 환경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
났다. 이것이 참 삶에 많은 영향을 ...** (탈북청년 7)

결국 자녀의 삶은 부모의 운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 관점이었
다. 이러한 7의 총평은 다른 탈북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7의 발언 이후
탈북청년들은 결국 좋은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가 성공한다, 출발점이 다르
다는 등 ‘금수저, 흙수저’ 논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주어진 환경과 계급적 한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회였는데, 이곳 남한 역
시도 다르지 않다는 대화들이 오고갔다. 이 작품에 대해 재해석을 해냈던
참여자4도 이에 동조하며 양 사회 모두 ‘금수저, 흙수저’ 논리가 적용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내 복에 산다’는 작품서사의 의미에 상반되는
현실적 비판의식이기도 하였지만, 결국 성공과 부모되찾기서사에 대한 부
담감을 드러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의 치성〉에 대한 반응

다음은 〈내 복에 산다〉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자아낸 〈부모의 치성〉
에 대한 내용이다. 이 설화에서 주인공의 상황은 북한사회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던 탈북청년들의 생애와 닮아
있다. 그리고 환생이라는 문학적 형상화는 서사 주체를 둘러싼 개인적·사
회적 억압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내 복에 산다〉 셋째딸의 갈등과 집을 떠난 이유와는 조금 다르
며, 본연의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과정도 다르다. 텍스트의 내러티브에서

도 <내 복에 산다>는 셋째딸이 솟구이총각과 만나서 금돌을 발견하고 인내하여 부자에 이르는 성공과정이 상세하게 구현되어 있지만, <부모의 치성>에서는 가난한 집 아들이 원님의 아들로 환생하여 원님이 되는 과정이 간명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원가족에서 떠나온 뒤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훨씬 성공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탈북청년들은 <부모의 치성>의 성공 결말에 대한 의구심이나 부담감을 자극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부모의 치성> 속 성공의 서사전개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기 위해 탈북청년들에게 이야기의 전반부만 들려주고 뒷이야기를 상상해보라고 하였다. 탈북청년들이 전생 삶에서 좌절을 경험한 주인공이 앞으로 성공하는 서사적 전개를 상상할 수 있는지 점검한 것이다. 먼저 이야기 즐거리 상 화려한 원님 행차를 바라보던 아들이 이를 소망하자 가난한 농부 아버지가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였고, 원님이 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아들이 죽었다는 장면까지만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를 상상해보라고 하였다. 뒷이야기를 상상하는 활동은 서사의 분기점에서 탈북청년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상상하는지를 파악하며, 작품을 접하기 전 내담자가 어떠한 서사 전개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지 혹은 어떠한 서사 전개를 선호하는지 그 인지와 감정 구조를 확인하는 문학치료 기법이다. 여기에서는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경제적·계급적 한계에 대한 탈북청년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적용되었다.

대체로 탈북청년들은 문제가 극복되고 주인공이 성공에 이르는 방향으로 서사를 상상하였다.

연구대상	창작한 이야기 즐거리
탈북청년 4	사실 아들이 죽은 일은 거짓이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집을 나와 어느 절에 들어가 공부하여 정말 고을 원이 되었다.
탈북청년 5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좌절하여 죽은 아들은 결국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탈북청년 6	그렇게 죽은 아들은 새로 부임하는 고을 원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하여 고을 원이 되었다. 사실 아들은 <u>전생의 기억</u> 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를 찾아가 은혜를 갚고 살았다.
탈북청년 7	아들이 죽자 충격에 빠진 아버지는 반성하고, 이 사회의 문제점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같은 좌절에 빠진 이들을 돕는 존재로 거듭난다.

탈북청년 4와 6은 아들이 처한 경제적·계급적 한계가 극복되는 방향의 이야기를 상상하였고, 5는 아버지의 말에 좌절된 아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냈고, 7은 계급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을 상상하였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탈북청년들 모두 ‘금수저, 흙수저’ 논란에 공감했던 앞선 반응과 달리,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경제적·계급적 한계에 포기해버리는 농부 아들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자가 본래의 줄거리를 소개한 후의 작품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 사안이다. 특히 탈북청년 4는 아들의 죽음을 ‘자살’로 해석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자살하는 행위) 그 또한 나약한 거. 그것 또한 무책임한 거. 모든 이들에 대한 그런 저버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떨어져 일어나서 아 발을 갈러 나가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일 당장 발을 갈러 가야하는데, 계속 낙심하고 있을 새가 어디 있어. (탈북청년 4)

자녀의 성공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경제적·계급적 한계는 대물림된다는 의식이 강했던 그는 이 작품 속 아들의 좌절과 비판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 현실적 한계가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비판하고 낙담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자살’은 자신과 주변을 모두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가장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즉 그는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잘산다’는 말은 맞지

만, 그것에 좌절하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오면, 환생하여 원님 아들로 태어난 주인공은 원님이 된 이후 이상한 꿈을 꾸다. 누군가 꾸준히 자신을 축원해주는 내용이었다. 원님이 된 아들이 꾸는 꿈은 기존 관계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고, 전생 부모의 치성은 현재의 성공이 전생의 삶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는 깨달음을 나타낸다. 부모의 치성 화소는 즉 현재 부모님과 분리된 삶이지만 그 정서적 연결고리는 지속된다는 가능성과 아무리 불행한 과거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행복이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문학적 상징이다.

이렇게 이 작품은 〈내 북의 산다〉와 비교할 때 부모되찾기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 성장 후 포용이라는 되찾기의 서사구조는 동일하지만, 전생의 관계로 환생에서의 성공이 가능했다는 인과관계를 명시하고 있어서 과거의 삶의 현재의 행복에 근간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감상자들로 하여금 전생 가족들이 치성을 드리는 있는 장면으로 부정적 감정이 소산²²⁾되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부정적 감정 소산의 근거로, 탈북청년들은 ‘부모의 치성’에 대해서 애달픈 감정을 표현하였다.

부모가 슬프다 좀 쟁하죠. 안스럽고. (탈북청년 5)

슬퍼요. 좋기도 하고. (탈북청년 6)

원래 이야기에서 자식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다시 태어나서는 꼭 원하는

22) 문학치료의 정신치료 효과 가운데 문학행위 반복을 통한 ‘직면’은 진짜 자기로서 문제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 특성 등을 서사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중요한 과정으로 문학행위의 반복으로 ‘부정적 감정의 소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박재인, 「문학치료 상담에서 나타나는 문학행위 반복 현상과 ‘직면’의 치료적 효과」, 『문학치료연구』 66, 한국문학치료학회, 2023, 9~45쪽.)

대로 살라고 기원했을 부모를 보고, 탈북청년들은 애달픈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복에 남겨진 부모님들을 떠올렸다.

어릴 때는 철이 없을 텐데. 부모가 너무 안 된다 하면 그 상황에서 핑이 나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환생에서 자식은 결국에 잘 됐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 되더라도 이제 자기 부모의 한마디 때문에 타락해서 죽은 자식을 평생 생각 하면서 그동안의 부모로서의 그런 여유로운 삶을 다 살지 못하고 평생 죽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탈북청년 7)

탈북청년 7은 지난 날 철없이 굴었던 일들을 후회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작품에서 아들은 죽고 나서 환생하여 잘되었지만, 아들의 죽음 본 부모님은 평생 가슴 아파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였다. 즉 부모님들의 애환을 떠올리는 발언이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자신의 탈북 선택이 남긴 문제, 부모님들의 걱정과 애환을 떠올리는 반응이었던 것이다. 이전 〈내 복에 산다〉에서 냉소적 반응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소산된 변화가 확인된다.

그리고 또 다른 탈북청년은 이 작품 속 ‘부모의 치성’에 깊은 감명을 표현하고, 그것은 ‘희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저는 그 뭐지. 부모님이 매일 죽은 날짜마다 밥을 넣어놓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되게 부모님한테 그게 희망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 큰엄마가 그 뭐지 자식이 죽었다고 해야 되나. 행방불명 됐거든요. 그 없어진 날마다 계속 그걸 밥을 떠 놓으세요 그 밥을 떠 놓는 게. 뭔가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가지고 이 부모님한테도 희망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좀 해요. 그래서 부모님 기도 덕분에 원님이 되었다는 이야기 내용이 마음에 들어요.(탈북청년 6)

그는 이 작품 속 부모의 치성이 ‘희망’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자기 친척의 사연을 들어서 그렇게 자식의 행복을 빌 수 있는 마음 자체가 희망과 같으며, 우리 자녀는 다른 세상에서 꼭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희망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이는 서사구조와 화소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동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기억과 작품을 교차해가며 그 의미들을 다시 구성해 내는 답변이었다.

탈북청년 6의 현재의 의식과 관련된다. 앞서 뒷이야기 상상하기 활동에서 탈북청년 6은 이 이야기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뒷이야기를 창작했던 참여자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원님 된 아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원님 아들이 전생 부모를 찾아 은혜를 갚는다는 결말로 마무리된다. 또한 그는 다른 참여자들과 다르게 줄곧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반드시 재회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는 편이었다. 그가 본래의 이야기와 가장 닮아 있는 형태로 뒷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었던 까닭은 부모와의 연을 놓지 않으며 재회의 날을 소망하는 그의 내면이 〈부모의 치성〉의 서사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볼 때, 탈북청년 6과 같이 현재에서의 부모와의 관계에 정서적 연결성이 확고할수록 〈부모의 치성〉 설화에 감동하며 자기 삶에 적용하여 깊이 있는 해석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 문제에 고통스러워하는 탈북민들에게 〈부모의 치성〉이 현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기능적인 정신적 도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는 탈북청년 6의 해석 방식을 지지하고, 더불어 다른 내담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언을 덧붙였다. 한민족에게는 집 떠난 식구의 밥을 챙겨놓는 풍습이 있고 그것은 밖에서도 식사를 잘 챙겨먹으라는 식구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참여자들은 이러한 풍속의 의미에 공감하였고, 특히 탈북청년 6은 “이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라고 호감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향에 내리는 눈이 진짜 눈인데, 서울의 눈은 눈도 아니에요.(탈북청년 4)

한 청년이 고향의 겨울 풍경을 시작으로 북에서 즐거웠던 기억을 이야기 하였고, 나머지 참여자들의 공감하며 이야기에 동참했다. 그러다가 가족관계 단절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북으로 다시 돌아간 지인 이야기, 북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왔다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 사연 등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는 잠시 탈북청년들은 침울해지기도 하였다. 가족관계 단절 문제를 감당해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떠올리는 순간이었다. 이 정서적 반응은 부정적이었으나, 자신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곧 <내 북에 산다>와 <부모의 치성>의 서사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감당해내려 다시 힘을 낼 것이라고 생각된다.

4. 결론

장마당세대 탈북청년들은 사회적·개인적 한계를 타파하고자 ‘탈북’을 선택한 존재로 이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하여 더욱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다. 자신의 인생에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향과 가족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가족들의 애정과 심리적 지지가 아직은 필요한 연령대로 그 갈등은 그리움을 넘어선 문제이다. 현재 이들은 가족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포함하여 가족관계 단절 문제에 힘겨워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고민은 탈북청년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나 폭력상황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을 떠나와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고쳐

하는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탈북청년들이 ‘부모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며, 현재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사유하게 하는 문학치료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부모밀치기에서 부모모찾기서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서사적으로 이해하며, 부모와의 물리적 재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부모모찾기서사의 설화작품들이 심리치료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비설화 <내 복에 산다>와 <부모의 치성으로 환생하여 원님 된 아들>이 가출과 탈북을 감행했던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내고, 부모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두 설화의 ‘성장 후 포용’이라는 서사구조와 중요한 화소들은 부모밀치기로 획득된 이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서적 연결로서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을 완화할 수 있고, 연결과 분리의 공존으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안전한 길을 안내해주기 때문이다.²³⁾

이 연구에서는 두 설화를 활용한 문학치료 집단 활동을 예시로 제시하였는데, 탈북청년들은 두 설화에 감동하면서 서사구조와 화소를 자신만의 해석방식으로 확장시켜 이해하고 삶의 현실문제로 적용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내 복이 곧 부모의 복이라는 서사에 대한 해석방식, 부모의 치성이 집 떠난 자녀가 잘 살고 있고 곧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한 해석방식은 자신의 문학적 역량과 삶에 대한 사유 능력을 힘껏

23) 기왕의 문학치료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자녀서사’의 발달 문제를 두고, ‘개체화(individuation)’ 이론에 근거하여 논의된 바 있다.(박재인, 「구비설화 <효불효다리>에 대한 문학치료적 반응과 자녀서사 유형」, 『인문과학』 75,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9, 5~37쪽.) ‘개체화’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연결(connectedness)과 분리(separateness)가 공존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가족구성원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성장의 수준을 말한다.(황영은·도현심,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2, 한국아동학회, 2004, 134쪽)

발휘한 결과에 해당하며, 두 설화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로 두 구비설화가 이들의 삶을 대변하면서 미래를 밝혀주는 탁월한 문학적 언어로 적합했다고 판단되며, 구비설화를 통한 삶에 대한 문학적 재의미화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두 설화작품이 삶의 자율성을 위해 가족관계를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외상기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서사로의 발달에 큰 힘을 발휘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19, 연세대 통일연구원, 2015, 6~40쪽.
- 김정애, 「구술담과 문학치료 활동을 통해 본 탈북민 P씨의 남한 적응 요인과 그 의미」, 『통일인문학』 65,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6, 171~209쪽.
- 김종근, 「탈북청소년 구술에 나타난 엄마의 해체와 자기치유적 말하기」, 『문학치료연구』 4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115~146쪽.
- 김현경,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trauma)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47쪽.
- 나지영, 「설화 〈내 북에 산다〉의 재창작을 통한 탈북 청소년의 문해력 신장 사례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151~176쪽.
- 도널드 위니콧 저·이재훈 외 역,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 박탈과 비행』,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1, 1~396쪽.
- 박재인, 「탈북여성B의 구비설화에 대한 이해 방식과 자기서사」, 『고전문학과 교육』 2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291~324쪽.
- _____, 「탈북여성의 부모밀치기서사 성향과 죄의식」, 『구비문학연구』 39, 한국구비문학회, 2014, 73~114쪽.
- _____, 「탈북민 대상 문학치료 사례 연구- '이주와 성공'의 고전서사와 자아실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1-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8, 75~103쪽.
- _____,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대한 탈북민의 반응과 문학치료 효과」, 『인문사회 21』 9-4, 인문사회21, 2018, 251~264쪽.
- _____,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학치료』, 박이정, 2018, 1~268쪽.
- _____, 「구비설화 〈효불효다리〉에 대한 문학치료적 반응과 자녀서사 유형」, 『인문과학』 75,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9, 5~37쪽.
- _____, 「『삼국유사』 〈비형 이야기〉를 통해 본 탈북청년들의 (탈)경계인으로서 자기서사」, 『문학치료연구』 63,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103~147쪽.
- _____, 「문학치료 상담에서 나타나는 문학행위 반복 현상과 '직면'의 치료적 효과」, 『문학치료연구』 66, 한국문학치료학회, 2023, 9~45쪽.
- 신동훈,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의 보완 확장 방안 연구」, 『문학치료연구』 3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32~36쪽.

- 엄태완, 「남북통합 과정의 심리사회적 위기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위기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북한학연구』 7-2,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11, 5~35쪽.
-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연구』, 통일연구원, 2003, 1~435쪽.
- 이하나·정동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정 변화에 따른 탈북 청소년 새로운 적응 양상과 교육적 과제 : 북한이탈청소년 P 방과 후 사례 연구」, 『학생연구 경연대회』 9, 덕성여대 사회과학연구소, 2010, 43~64쪽.
- 장유빈·장혜인,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의미만들기가 외상후스트레스증상 및 외상후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8-2, 한국건강심리학회, 2023, 399~424쪽.
- 정운채, 「문학치료학과 역사적 트라우마」, 『통일인문학』 55,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3, 15~21쪽.
- _____,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기초서사의 네 영역과 〈구운몽〉 분석 시론」, 『문학치료연구』 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7~36쪽.
- _____,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361~381쪽.
- _____, 『문학치료 서사사전』 2, 휴머니스트, 2022, 1~1196쪽.
- _____, 『문학치료 서사사전』 3, 휴머니스트, 2022, 1~1481쪽.
- 주디스 허먼 저·최현정 역,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플래닛, 2009, 1~456쪽.
- 황영은·도현심,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2, 한국아동학회, 2004, 133~154쪽.

ABSTRACT

The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 of Folk Tale of Recovering Parents for the Problem of Family Relationship Breakdown

Park, Jai-in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Family Relationship Breakdown' of Jangmadang Generation North Korean refugees. I designed what kind of psychotherapeutic effect Korean Folktale could have. Because the Jangmadang Generation chose to defect from North Korea to overcome social and personal limitations, they are experiencing more complex conflicts regarding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North Korean family. Therefore, I proposed a literary therapy plan to them to think about 'how do I understand my parents' life, and what kind of life do I want to live now?' In this literature therapy, stories of Recovering Parents can be applied. These works contain the epic structure of 'support after growth' and special Motifs that enable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North Korean refugees can imagine ways to relieve the pain of broken family relationships through emotional connection without giving up the advantages gained through parental pushing away. Further more, this study presented a case of literary therapy using the folktales <Live in My Fortune> and <The Prayer of Past Life Parents>. North Korean refugees deeply understood the two folktales and reinterpreted the meaning of the works by connecting them to their own lives. In this case, it was confirmed that the two folktales played a role in representing their lives and imagining a positive future.

Key Words Jangmadang Generation, Literary therapy for North Korean refugees, Folktale <Live in My Fortune>, Folktale <The Prayer of Past Life Parents>, The Story of Recovering Parents, Literary resymbolization of life

논문투고일: 2024.01.10.

심사완료일: 2024.02.02.

게재확정일: 2024.02.07.